

채 규 만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성인애착과 성관계요구에 대한  
응중 모형 연구

200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공소연

성인애착과 성관계요구에 대한  
응종 모형 연구

채 규 만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공 소 연

# 인 준 서

공소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성인애착과 성관계 응종의 동기들이 어떻게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가 정적 정서와 부적정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데이트 파트너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응해본 적이 있는 신입생에에서부터 4학년까지의 한국대학생 327명(남자 160명, 여자 167명)이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인터넷 수업 수강자 284명이 전자 우편을 통해서 보고하였으며 43명이 심리학 개론 수업에서 보고하였다.

성인애착척도 (revised Adult attachment Scale),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 척도(Consensual Unwanted Sex Scale, Impett & Peplau), 성관계 응종 동기 질문지( Reasons for Sexual Compliance Questionnaire, Impett & Peplau 2002)),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2003)가 연구도구로 사용되었다.

결과는 SPSSWIN 13.0과 AMOS 5.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적률상관계수, 평균차이검증, 구조방정식 모형과 경로분석으로 분석되었다.

이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의미한 경로가 남녀모두에게서 나타났다. 첫째, 남녀 모두에게서 애착의 불안수준이 높을수록 성관계 응종의 동기와 성관계 응종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여학생에게서만 애착의 회피의 수준이 높게 나타날수록 응종의 동기와 응종이 낮아졌다. 세 번째, 남학생들은 성관계 응종을 많이 할수록 정적 정서를 많이 보고하였다. 네 번째, 여학생들은 응종을 많이 할수록 부적정서를 적게 보고하였다.

# 목 차

## 논 문 개 요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용어의 정의 .....	3
1) 성관계 .....	3
2) 응중 .....	3
3)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중 .....	4

### II. 이론적 배경

1. 성관계 응중에 대한 선행 연구 .....	5
1) 성관계 응중의 정의 .....	5
2) 대학생들의 성관계 응중의 현황 .....	6
3) 성관계 응중의 성차 .....	7
2. 애착의 내적작동 모델	
1) 아동의 애착과 성인애착 .....	9
2) 애착과 정신병리와의 관계 .....	10
3) 성인애착 특성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중에 미치는 영향 .....	11
① 애착의 불안 차원과의 관계 .....	11
② 애착의 회피 차원과의 관계 .....	12
3. 성관계 응중의 매개변인으로서의 동기	
1)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중의 동기 .....	12
2) 동기의 성차 .....	14
4.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중의 결과	
1) 정서의 인지적 측면 .....	15
2) 개인의 정서의 변화 .....	16

5. 연구문제 .....	18
<b>III. 연구 방법</b>	
1. 연구 대상 .....	21
2. 검증 대상 모형 .....	21
3. 측정도구	
1) 성인애착 척도 .....	<b>22</b>
2)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 척도 .....	<b>23</b>
3) 성관계 응종 동기 질문지 .....	<b>23</b>
4)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 .....	<b>24</b>
4. 측정 방법 .....	25
<b>IV. 연구 결과</b>	
1. 연구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성행동의 특성 .....	26
2) 경로모형에 포함된 변인의 특성과 성차 .....	28
3) 남학생과 여학생의 공통 모형 .....	28
4) 다중 집단 분석 .....	32
5) 남녀 대학생의 경로의 차이 .....	39
<b>V. 논의 및 제한점</b>	
1. 연구의 결과 및 논의 .....	40
2. 연구의 의의 .....	46
3. 제한점 .....	47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부록

# 표 목 차

<표 1> 인구 통계학적 특성 .....	26
<표 2>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	31
<표 3> 성별 다중 표본의 적합도 .....	33
<표 4> 남학생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	34
<표 5> 여학생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	36

# 그림 목 차

<그림1>	남학생과 여학생 공통의 구조방정식 모형 .....	28
<그림2>	남학생의 경로분석 .....	34
<그림3>	여학생의 경로분석 .....	37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대학생들은 대부분 만 18세에서 21세 사이에 성경험을 시작한다(손애리 등, 2005). 대학생들의 성행동 경험의 조사 연구에 따르면 70% 이상이 이성교제를 하고 있으며, 이들 중 48% 정도가 애무 이상의 성적 접촉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향숙, 2001). 성태도나 성행동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성관계 경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0년도의 조사에 따르면 남학생의 64.3%, 여학생의 28.7%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결혼 전이라도 사랑하는 사이라면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는 의견이 50%이상인 연구결과들(손애리 등, 2005; 고연숙, 2000)이 있다.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 개발 연구(전검구, 김교현, 이준석, 2000)에 따르면 이성교제는 가치관, 장래, 경제 문제등과 더불어 주요 7가지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이다. 또한 이성교제에서의 갈등의 정도는 간이 정신 진단 검사(SCL-90-R)와의 상관연구에서 우울과 불안의 척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어 대학생들의 이성교제로 인한 갈등이 정신 병리적 측면과도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원하지 않는 성관계의 이유들을 밝힌 선행 연구에서 ‘파트너와의 친밀감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혹은 ‘파트너가 나를 떠날까봐 불안해서’가 성관계 응종의 주요한 이유로 나타나, 개인의 애착 특성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Impett & Peplau, 2000; O’ Sullivan & Allgeier, 1998). 성인기에는 생애 초기에 주 양육자와 형성한 애착이 점차 부모에게서 이성으로 향하게 되면서 애착 대상의 위계에서의 변화가 일어나

게 된다. 이러한 전환을 Weiss(1982)는 ‘애착대상의 역전’이라하였고 대체로 이성 친구가 주 애착대상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강진경, 2001, 재인용). 그러므로 주 애착 대상이 되는 이성교제의 파트너와의 갈등은 대학생에게 스트레스 요인이 될 뿐 아니라 불안정한 애착으로 인한 갈등이 우울증과 같은 정동 장애(affective disorders) 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원호택, 1997) 대학생의 정신건강에서 탐색되어야 할 영역이다.

남녀 모두 애착의 불안 수준이 높은 이들은 강박적으로 타인과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가까워지지 않을까봐 늘 걱정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런 이들은 성관계의 협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자신을 통제하고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성적 권리와 기쁨을 누릴 기회를 차단하고, 때에 따라서는 성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유외숙, 2004).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빈번하게 상대방의 성적 요구에 응하는 것은 남녀 모두에게서 성폭력의 예측 변인은 아니었지만 성 피해자를 만드는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드러났으며, 성폭행의 경험이 증가할 가능성과 관련이 있었다(Krahe *et. al.*, 2000; Shotland & Hunter, 1995).

데이트 파트너와 성적 갈등이 발생할 때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응하고 난 후 경험하는 심리적 신체적 문제들을 호소하는 내담자들은 파트너와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한 행동의 결과가 결별로 가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자각하기도 한다(유외숙, 2004). 친밀한 관계에서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응할 때, 개인의 동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응한 경우는 이 후에 부정적인 결과들을 초래하게 된다. 파트너와의 성관계에서 자신이 희생자가 되었다고 느낄 수도 있고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파트너의 요구에 응한 자신에 대한 분노나 부끄러움 등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나 자존감의 손상같은 정서적인 불편감을 경험하게 된다. 결국 이런 부정적인 정서 경험들은 파트너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여성의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은 추후의 데이트 관계에서 보다 쉽게 성폭행을 당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Impett & Peplau, 2003).

국내 기존의 연구에서는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에 대한 응종에 대한 모형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되었으며 본 논문은 제언에 따라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에 따르는 정서적인 영향을 보고자한다. 이성교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연구와 응종을 하게 되는 경로의 연구는 친밀한 관계에서 자신의 욕구와 관계없이 성행동에 응하게 되어 심리적 불편감을 겪는 내담자의 치료에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애착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불안한 애착을 가진 개인들이 가질 수 있는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을 한 후에 따라오는 정신병리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까지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애착이론 (Bowlby, 1973)과 동기이론, 정서이론을 바탕으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이르는 변인에 대한 탐색과 그 정서적 결과의 경로를 살펴볼 것이다.

## 2. 용어정의

### 1) 성관계( Sexual Relationship)

데이트 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애무(fondle sex), 구강성교(oral sex), 삽입성교(intercourse) 의 경험을 총칭한다.

### 2)응종(compliance)

응종(compliance)은 개인이 어떤 행위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하도록 요구받은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3)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 (unwanted sex compliance)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은 데이트 관계에서 실제로는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을 때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 성적인 흥미를 가지고 있는 파트너에게 “예”를 표시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Impett & Peplau, 2003)

### 4)성관계 응종 동기( motivations for sexual compliance)

성관계 응종 동기는 데이트 관계 안에서 파트너의 성관계 요구에 원하지는 않지만 응종하게 되는 이유들이다. 그런 이유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접근동기와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한 회피동기,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동기가 포함된다.

## Ⅱ. 이론적 배경

### 1. 성관계 응종에 대한 선행연구

#### 1)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의 정의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은 데이트 관계에서 실제로는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을 때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 성적인 흥미를 가지고 있는 파트너에게 “예”를 표시하는 상황을 의미한다(Impett & Peplau, 2003).

개인이 성행동에 있어서 자유롭게 동의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한 쪽 극단에서 보자면 성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내키지 않는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해를 가하겠다는 위협을 하거나 실제적인 신체적 강요를 가할 수도 있다. 그런 사례는 분명히 성적 학대나 강간이 될 수도 있다(Hickman & Muehlenhard, 1999; Muehlenhard, Powch, Phelps, & Giusti, 1992; Schulhofer, 1998). 중간정도 수준에서 보자면 성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이 파트너에게 성적 행동을 하자고 심리적인 압력을 사용하는 모호한 경우이다 (Lewin, 1985). 다른 극단에서는 한 개인이 성관계를 원하지 않지만 구속이나 강압이 없이 파트너의 성관계의 시작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분명히 합의된 것으로 보여지며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성관계의 대표적 유형을 나타내준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의 연구자들은 신체적 위협이나 신체적 해를 가하는 경우는 제외시키고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 파트너가 성관계에 대한 심리적 위협을 어느 정도 느끼는 경우는 포함시켰다. 성적 응종은 명목상의 저항(token resistance)의 상황과는 혼동되어서는 안되는데 이는 성적인 관심의 표현에 대해서 ‘아니오’ 라고 반응하기는 하지만 실제

로는 ‘네’를 의도하면서 성적인 활동에 결국 참여할 의도를 가지는 것으로 응종과는 구분되어야한다(Muehlenhard & Hollabaugh, 1988; Shotland & Hunter, 1995). 오히려 명목상의 저항과는 반대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은 데이트 관계에서 실제로는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을 때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 성적인 흥미를 가지고 있는 파트너에게 “예”를 표시하는 상황을 의미한다(Impett & Peplau, 2003).

## 2) 대학생들의 성관계 응종의 현황

연구에 따르면 이성교제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애무를 응종한 비율은 전체 대학생의 20% 이상이었으며 성교를 응종한 학생도 14.9%~19.4%로 나타났다(김향숙, 2001; 한경순, 함미영, 2000). 유외숙(2004)에 따르면 국내 전국 대학생 1601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거나 현재의 데이트 파트너 사이에서 파트너의 원하지 않는 성관계(애무, 구강성교, 삽입성교)요구에 적어도 한번이상 응종한 경험이 있는 남녀 대학생이 829명(남학생 366명, 여학생 4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국에서는 십대들을 대상으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표본에서는 성 경험이 있는 여성의 55%와 남성의 35%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대학생들에 관한 조사에서 50%의 여성과 26%의 남성이 최근 2주 동안 원하지 않는 성적 활동에 동의했다고 보고했다(O’ Sullivan & Allgeier, 1998). 만 18세 이하의 여학생들에 대한 조사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이 십대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원하지 않는 임신과 감염의 경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 Sionean, et al. 2002).

대부분의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에 관한 연구는 미국 표본이 지배적이지

만 Sprecher(1994) 등은 미국과 러시아 일본에서 이 조사를 실행한 결과 남성은 25%에서 35%의 경험이 있었고, 반면에 여성들은 55%가 과거에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해서 ‘네’ 라고 응답하였다.

### 3) 성관계 응종의 성차

남성의 성적인 충동이 여성보다 더 크다는 연구결과는 많이 되어져 있다. 이것은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 경험이 더 많은 수를 나타낼 수 있음을 나타내준다(Beck, Bozman, & Qualtrough, 1991; Jones & Barlow, 1990; Knoth, Boyd, & Singer, 1988). 또한 성관계에 있어서 여성의 피해나 심리적 후유증에 관한 연구들만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성적응종은 남녀 모두에게서 성폭력의 예측 변인은 아니었지만 성 피해자를 만드는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드러났으며, 성폭행의 경험이 증가할 가능성과 관련이 있었다(Krahe' et. al.,2000; Shotland & Hunter, 1995). 국내의 연구에서도 유외숙(2004)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비율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같은 연구에 따르면 남학생 집단의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 점수는 2점에서 21점의 점수 범위에서 평균 11.79 (SD=4.44)점 이었는데 이는 ‘때때로 응했다’ 의 점수인 12점 수준에 가까운 수준이며 여학생의 경우는 8.47 (SD=3.41) 로서 ‘약간 응했다’ 의 9점 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테이트 관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남학생의 성행동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2. 애착의 내적 작동 모델

### (1) 아동의 애착과 성인애착

애착 이론은 원래 유아가 양육자와 친밀한 신체적 근접성을 유지하게 하는 행동적이고 정서적인 반응을 설명하기 위해 발달되었다(Bowlby, 1969). 이 이론에 따르면 새끼는 어른(대개는 어머니)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추구하도록 몇 가지 상호연관된 선천적 경향성을 타고나기 때문에 애착을 한다고 제안하였다. Bowlby 에 의하면 사람은 선천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성향을 갖고 있고, 또한 부정적인 것, 미지의 것, 낮은 것에 대한 선천적인 공포를 가지기 때문에 주 양육자와 애착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초기의 애착경험은 내재화되어서 아이의 자기 개념과 타인에 대한 기대의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 어린 아이의 자기에 대한 작동모델(working model)은 양육자가 반응적이고, 도움을 주고, 돌보아 줄 것인지와 이와 대조되는 비반응적이고, 무관심하고, 해로울 것인지에 대한 일반화된 기대이다.

Bowlby(1979)는 초기 애착이 내적 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에 의해 성인기의 이성 친구나 배우자와의 애착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내적 작동 모델이란 유아가 어머니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동안의 경험들을 통해서 갖게 되는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계에 대한 내적 표상으로서, 개인은 이 모델을 통해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지각하고 해석하며, 미래를 예상하고 행동을 계획하게 된다(Main, Kaplan, & Cassidy, 1985).

Hazan과 Shaver (1987)도 아동기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양식이 성인기 애정관계에서도 지속된다고 처음으로 경험적 연구를 발표하며 성인 애착 척도를 개발한 이후, 성인의 다양한 애정행동들을 애착 개념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지속되어 왔다. 그들은 초기애착관계가 성인기의 남녀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애정 관계 그 자체는 어린아이가 주 양육자와 가졌던 애착과 중요한 유사점을 가지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애착 유대는 인생 전반에 걸쳐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며, 초기의 애착 모델은 도식(schema)과 일관된 경험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지각, 정보처리, 대인관계 행동을 편향시키기 때문에 이후의 사회관계에 대한 원형 기능으로 간주된다(원호택, 이용승, 2003).

Hazan과 Shaver(1987)는 Ainsworth 등(1978)에 의해 개발된 애착 개념을 성인관계에 적절한 용어로 전환하여 표준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성인의 애착 양식을 세가지 범주로 나누었는데 안전(secure) 애착, 회피(avoidant) 애착, 불안한 또는 모호한 애착(anxious/ambivalent)이 그것이다. 안전한 애착은 상대방과 가까워지는 것이 비교적 쉽고 타인에게 의지하거나 타인이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는 상태이다. 회피적인 애착은 타인과 가까워지는 것이 불편하고 타인을 믿기 어려우며 자신이 상대방에게 의존하는 것도 다소 어려워하며 종종 데이트 파트너가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정도보다 더 친밀해질 것을 요구한다고 느낀다. 불안한 또는 모호한 애착은 내가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은 나와 가까워지는 것을 꺼린다고 느끼며 종종 파트너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거나 함께 있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그 이후 Collins 와 Read(1990)는 Hazan과 Shaver(1987)의 성인애착이론을 근거로 하여 성인애착의 좀 더 광범위한 조사를 요구하는 많은 문제들을 탐색하였으며 범주보다는 성인애착의 차원을 연구하였다. 즉, Hazan과 Shaver(1987)의 연구나 기존의 애착에 관한 연구들이 어느 한 개인의 애착 상태를 특정한 범주(Type)로 분류하였다면 Collins 와 Read(1990)의 성인애착 척도는 개인이 가족, 친구, 애인에 대해서 불안함(anxiety)를 느끼는 정도, 상대방과 자신간의 의존(depend)에 대해 느끼는 정도, 또한 상호간에 가까움(close)을 느끼는 차원(dimensions)의 문제로 측정하였다. 즉, 불안함

을 느끼는 정도가 높거나 낮은 정도, 의존을 쉽게 하거나 하지 않는 정도, 가까움을 잘 느끼는 정도의 높거나 낮음을 측정하는 것이다. Collins와 Read(1994)는 성인의 애착 표상은 애착과 관련된 경험의 기억, 애착과 관련된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념, 태도 및 기대, 애착과 관련된 목표와 욕구, 애착 목표를 성취하는 것과 관련된 방책과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외 연구에서 애착유형과 정서 조절 양식(이귀선, 정남운, 2003); Bartholomew, 1990; Feeney, 1995,1999), 애착과 갈등 및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식(김광은, 2004; Kobak & Hazan, 1991; Kobak & Duemmler, 1994), 애착과 결혼 만족도(김광은, 2005; Feeney, 1994; Kirkpatrick & Dvis, 1994) 등, 다양한 애정관련 행동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졌다. 애착에 대한 연구가 인기를 끌게 되는 이유를 Fraley 와 Shaver(2000) 는 애착이라는 한 틀로서 성인의 애정관계 발달, 유지, 이별 현상을 설명할 수 있으며, 동시에 성격발달, 정서 조절, 정신병리에 대한 새로운 조망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2) 애착과 정신병리와의 관계

최근 임상심리학자들은 애착이론을 심리치료 뿐 아니라 정신병리의 연구에 적용시키는데도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 발달을 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보는 견해와 관계 경험의 내재화가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는 견해는 임상 이론과 연구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원호택, 이승용,1997).

불안정한 성인애착은 우울을 비롯한 정동장애와 관련이 된다(Robers, Gotlib, & Kassel, 1996). 안정된 성인애착은 주요 생활 스트레스와 관련되는 심리적인 불편감에 대해 완충역할을 한다. 애착이론은 인지적인 취약성을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비일관적인 부모나 거부적인 부모는

아이에게 불안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하여 역기능적인 인지도식을 가지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아이는 성장한 뒤에도 부모와의 타인과 안정된 인간관계를 맺기 원하나 상대방의 거부와 일관성 없는 반응에 민감하여 대인간 상황에서의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자신이 거부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무가치감이 확인된 것으로 여기게 만든다. 이러한 경향은 우울과 여러 가지 심리적 장애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원호택, 이승용,1997).

### (3)성인 애착특성이 성관계 응종에 미치는 영향

#### ① 애착의 불안 차원과의 관계

애착 특성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에 대한 연구를 애착이론을 근거로 살펴보자면, 애착 요소들은 친밀한 관계의 질을 통해 관계 유지 및 관계 만족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에도 영향을 주고있다(유외숙, 2004). 안정 애착형 사람들은 파트너가 자신을 수용하고 돌볼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는 반면에, 불안 애착형 사람들은 파트너의 반응에 불안정하며 상대방과의 분리와 거절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Hazen & Shaver, 1987). 따라서 불안 애착형 사람들은 파트너가 자신에게 흥미를 잃거나 떠날 것에 대한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하여 안정애착형 사람들보다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비교적 더 많이 응할 수가 있다. Impett 와 Peplau(2000) 의 연구에 따르면 데이트 중인 여자대학생에 대한 연구에서 불안하게 애착이 형성된 여성은 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된 여성보다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응종할 확률이 높았다. 안정적인 여성과는 달리 불안한 여성은 두 가지 이유를 분명히 드러내주었는데 우선, 불안한 여성들은 안정적인 여성보다 두 배 이상으로 그들의 파트너가 자신에게 흥미를 잃을까봐 두

러워했다. 두 번째로 안정적인 여성보다 불안한 여성이 두 배 이상으로 그들의 파트너가 관계를 끝내자고 할까봐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응종하였다(21% vs. 10%).

## ② 애착의 회피차원과 관계

회피의 차원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개인들은 관계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거리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 파트너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려 할 때 두렵게 된다. 회피적인 개인이 친밀해지는 것에 대해 느끼는 불편감은 그들이 파트너의 성적인 친밀감에 대한 요구를 거절하게 만든다. 게다가 친밀한 파트너를 그들이 실제로 느끼는 것보다 더 친밀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만약에 회피적인 개인이 그들의 파트너가 관계에 너무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으로 인지하면 그들은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응종하지 않게 된다(Impett & Peplau, 2002). 국내의 논문에서도 의존수준이 이성 교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에 성관계 응종 동기를 통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응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타인이 도움을 줄 것이라는 신뢰가 적을수록 “이미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관계의 긴장을 피하고 싶어서” 등의 성적 응종 동기가 높아지며 성적 응종 동기가 높아질수록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을 더 많이 한다(유의숙, 2004).

## 3. 성관계 응종의 매개 변인으로서의 동기

### (1) 성관계 응종의 동기

동기(motivation)란 인간의 행동을 활성화(Activation)시키는 요소로써 동기의 추동(drive) 또는 흥분 유발(arousal)의 차원을 의미하거나 또는 인간의 행동 방향을 설정하거나 일정한 목표를 지향하도록 통로화(channels)시키는 요소를 말하며 행동에서 어떤 목표를 지향하여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동기개념은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고 어떤 상황에서는 일어나지 않는지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며,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동기의 주요 구성 개념들 중에서 파트너의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개념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쾌락설이다. 쾌락설은 인간이 쾌락과 고통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고 설명한다. 즉 개인의 행동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것과 부정적이거나 고통스러운 회피를 포함하는 동기가 있다. 개인의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만족을 얻기 위한 쾌락의 추구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인간의 성행동에 대한 연구에 대한 초기 행동적인 접근은 대개 성행동에 대한 동기적인 근거를 무시해왔다(Kinsey, Pomeroy, & Martin, 1948; Kinsey, Pomeroy, Martin & Gebhard, 1953). 최근에는 동기 이론의 연구자들이 성행동의 생물학적인 내적인 본능에 더해 개인적 외적인 다양한 동기들을 포함하기 시작했다. 그 동기로는 특히 파트너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기 위한 요소를 포함한다(Basson, 2001,2003). 많은 수의 경험적인 연구들이 육체적인 또는 성적인 쾌락의 추구하고 더불어서 성행동에서의 다양한 이득들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이득들에는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 성적 긴장을 감소시키는 것, 중요한 관계에서 친밀감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 성적 경험을 얻는 것, 관계에서의 갈등을 예방하는 것, 상대방을 정복했다는 느낌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것 등이 있다(Carroll, Bolk, & Hyde, 1985; Denney, Field, & Quadagno, 1984; Hatfield, Sprecher, Pillemer, Greenberger, & Wexler, 1989; Hill & Preston, 1996; Leigh, 1989).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응종에 관한 최근 연구는 육체적인, 성적인

쾌락의 추구 외에 다양한 동기들을 제시한다( Impett & peplau, 2003). 예를 들면 여자 대학생들에 관한 연구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의 응중에 대한 동기는 파트너의 욕구를 만족시키거나 관계에서의 친밀감을 증가시키는 것, 파트너가 관계에 대해서 흥미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포함한다(Impett & Peplau,2002).

E. A. Impett 와 L. A. Peplau, 그리고 S. L. Gable(2005) 의 최근 연구는 이러한 원하지 않는 성관계의 동기를 접근적인(approach) 것과 회피적인(Avoidance) 것의 두 가지 면에서 측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접근적인 동기는 상대방과의 친밀함을 높이기 위한 동기이며 회피적인 동기는 관계에서의 갈등이나 감정적 불편감을 느끼지 않기 위한 방책으로서의 응종의 결과를 낳는다. 접근적인 동기는 ‘파트너의 성적인 기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의 파트너를 기쁘게 하려고’, ‘파트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관계에서의 친밀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였으며 회피적인 동기는 ‘관계에서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파트너가 화낼까봐’, ‘파트너가 나에게 흥미를 잃게 될 것을 막기 위해서’ 등의 동기를 포함했다.

## (2) 동기의 성차

O’Sullivan과 Allgeier(1998)가 데이트 관계에 있는 남녀 대학생들을 분석한 결과 여자들은 파트너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친밀감을 얻기 위해서 응종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남학생은 관계의 긴장을 풀기위해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참여한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했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성경험을 얻기 위해, 또래들을 깊은 인상을 주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원하지 않는 애무나 성교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반면 여학생들은 파트너가 관계를 끝낼까봐 두려워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더 응종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남학생의 경우 관계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이나,

갈등상황을 피하려는 회피동기, 또한 성적 호기심이 높을수록 원하지 않는 파트너의 성관계 요구에 더 많이 응종하였다. 반면에 여학생은 친밀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나 파트너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동기가 더 높았다(유외숙, 2004).

## 4.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의 결과

### (1) 정서의 인지적인 측면

정서에는 생물학적 측면과 인지적인 측면, 감정이나 기분에 관한 측면, 사회문화적인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인지적 측면이며 그 핵심개념은 “평가”라는 개념이다(Frijda, 1993; Smith et al., 1993). 인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서는 생활사건 들에 대한 과거의 평가(인지)없이 일어나지 않으며 생활사건 그자체가 아니라 평가가 정서를 일으킨다. 일단 어떤 대상이 좋은 것 또는 나쁜 것(또는 이로운 것이나 해로운 것)으로 평가되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경험이 즉각적이며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Arnold(1970)에 따르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느껴진 것이다. 좋아함은 정서를 유발시키는 대상을 향해 접근하도록 만드는 동기적 경향성을 일으키게 되고 싫어함은 그 반대가 된다. Lazarus(1991a)에 따르면, ‘이 상황이 나의 안녕과 관련이 있는가?’, ‘관련성이 있다면 내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일치하는가 아니면 일치하지 않는가?’, ‘이 사건이 나의 자존심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 등 자신과의 관련성, 목표와의 일치도, 자아와의 관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면, 사람들은 특정 유형의 해로움, 위협 또는 이익 등으로 상황을 평가한다(Lazarus, 1991a, 1994).

개인적인 관련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평가 과정이 종료되

는 것이 아니다. 지각된 대처 능력은 자신이 직면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 또는 평가하는가를 변경시키게 된다(Folkman & Lazarus, 1990; Lazarus, 1991a, 1991b). 모욕을 당하였고 해로웠다면 해로운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을 하거나, 그러한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심리적인 회피를 하거나 평가 자체를 변화시킴으로써 이런 상황에 대처한다. 예를 들어, “그러한 말은 사실 해로운 것이 아니다”; “실제로 나는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돼” 이런 식으로 스스로 변화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처가 상황을 평가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평가가 변화한 정서를 일으킨다. 요약하면, 사람들은 상황에 대한 자신의 관련성을 먼저 평가하고(일차평가), 그 후에 상황 내에서 그들의 대처 방안들을 이차적으로 평가한다(Johnmarshall Reeve, 2003).

본 연구에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의 결과를 행동 직후에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인지적인 평가가 내적,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재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서의 이차적 평가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 (2) 개인의 정서의 변화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로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성교제 중인 대학생들에 대한 연구에서 29%의 남자와 35%의 여자만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응종한 것의 결과로서 감정적인 불편감을 호소했다(O'Sullivan & Allgeier, 1998). 또한 원하지 않는 성관계의 동기가 관계에 대한 접근적일 때 부적정서(Negative affect) 보다는 정적 정서(Positive affect)를 보고하였다. 즉, 상대방과의 관계가 재미있어졌고, 만족스러워졌으며, 친밀하게 되었고, 갈등을 느끼지 않게 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데이트 초기에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써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있다. 어떤 여성들은 그들이 데이트하는 파트너로부터의 적절한 관계의 확신을 얻을 때까지 성관계를 꺼리기는 하지만 많은 수가 성을 남성으로부터 더 강한 친밀감을 유발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성관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Carroll *et al.*, 1985).

그러나 Haselton 과 Buss (2001)에 의한 연구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은 데이트파트너와의 첫 성관계(삽입성교) 후에 다른 애정적 반응을 경험했다는 것이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감정적인 유대의 감정을 더 많이 갖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전보다 성관계 이후에 더 큰 사랑과 친밀도를 느낀 것을 보고했다. 반면에 여학생들에 비해서 남학생들은 파트너에게 처음보다 성관계 후에 신체적, 성적으로 매력을 덜 느끼는 것으로 보고했다. 이 결과는 과거에 많은 성적 대상자들을 가졌던 학생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첫 성관계 이후 남학생과 여학생의 감정적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에게는 성적 유익이 관계 발전과 친밀도를 향상시키는 전략으로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부정적인 감정은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무의미한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한 불편감, 그 이후의 관계에서의 긴장을 포함한다. 접근과 회피동기의 구별은 다양한 감정적 반응들을 분명하게 해 줄 수 있다. 접근 동기들은 긍정적인 감정적 반응을 증가시키기 쉽다. 예를 들어 결혼한 커플들 사이에서 부인이 남편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지지하기 위해 성관계에 응종을 했을 경우 감정적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가 적었고 대신에 부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고 남편에 대해 지지적이었다고 느낀다(Impett & Peplau, 2003). 그러나 반대로 미혼인 대학생 집단에 대한 연구에서는 여학생들이 상대방이 화가날까봐, 버려질 것이 두려워서 폭력과 상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관계에 응종을 한 경우가 많았고 수치심과 분노, 두려움을 많이 보고했다. 또한 상대방과의 친밀감을 높이려는 접근적인 동기가 아니라 갈등에 대한 회피적인 동기를 가지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응종하는 경우에는 부적정서를 보고하였으며 상대방과의 관

계에서 많은 갈등을 느끼게 되었고 만족스럽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Impett, Peplau & Gable, 2005).

그 주체가 여성일 경우 특히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신호를 남성이 잘못 해석하거나, 본인의 행동을 통제하지 않아서 데이트 강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여학생이 남학생의 성관계 요구에 원하지 않았지만 응종했을 경우에는 위험성 있는 성적 행동이나 미래에 데이트 폭력의 결과의 높은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Impett & Peplau, 2002a). 성관계에 대해서 가치관 확립이 미비한 성인기초기인 대학생시기에 이뤄지는 성관계는 많은 문제를 낳는데 낙태 수술을 하는 사람의 87%가 24세 미만인 미혼여성이라는 보도(동아일보, 2004, 11,30)가 있어 성관계에 대한 갈등과 이후의 부정적인 결과를 시사한다. 한국성폭력 위기센터에서는 2005년 상반기 상담 통계에서 의뢰 성폭력 피해자 중에서 20세에서 29세 사이의 비율(36.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했으며 애인파, 전애인, 데이트 상대자의 비율이 그중에서 10.4퍼센트에 달하여 데이트 파트너와의 성적 갈등이 발생할 때 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응하고 난 후 경험하는 심리적 신체적 문제들을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연구와 심리치료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5. 연구문제

### 1. 대학생 개인의 성인 애착요소 중 불안의 차원은 이성교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의 동기와 응종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1. 성인애착에서 불안 차원이 높을수록 이성교제에서 성관계 응종을 할 동기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성인애착에서 불안 차원이 높을수록 성관계 응종을 많이 할 것이

다.

가설 3. 성인애착에서 불안 차원이 높을수록 이성교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 후의 정서에 대해서 부적인 정서를 보고할 것이다.

## 2. 대학생 개인의 성인 애착요소 중 회피의 차원은 이성교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의 동기와 응종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4. 대학생 개인의 성인애착 요소 중 회피가 높을수록 이성교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의 동기가 낮아질 것이다.

가설 5. 대학생 개인의 성인애착 요소 중 회피가 높을수록 이성교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을 적게 할 것이다.

가설 6. 대학생 개인의 성인애착 요소 중 회피가 높을수록 이성교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 후의 감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보고할 것이다.

## 3. 대학생 개인의 이성교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의 응종의 동기는 남녀 모두에게서 성관계 응종의 매개 역할을 하는가?

가설 7. 대학생 개인의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의 동기는 독립변인인 성인애착과 성관계 응종사이에서 부분 매개 변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

## 4. 대학생 개인의 이성교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이 어떤 정서적 결과를 낳았으며 성차가 있는가?

가설 8. 이성교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응종을 한 여학생은 정적 정

서보다 부적 정서를 더 많이 보고할 것이다.

가설 9. 여학생은 이성교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응종을 많이 할 수록 부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정적 정서를 더 적게 경험할 것이다.

가설 10. 이성교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응종을 한 남학생은 정적 정서를 부적 정서보다 더 많이 보고할 것이다.

가설 11. 남학생은 이성교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응종을 많이 할수록 정적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고 부적정서를 더 적게 경험할 것이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2006년 2학기 열린 사이버 대학교(OCU)의 인터넷 수강 과목인 수업 대상자들인 전국 대학생 589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그중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설문지 18부를 제외하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의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 279명의 설문지를 수거하였고 같은 학기에 I 대학교 심리학 개론 수강자들 113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여 48명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전체 학생 수는 327명이었으며 남학생 160명과 여학생 167명이었다.

#### 2. 검증 대상 모형

‘이성 교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의 응낙의 모형설명’(유외숙, 2004)와 Impett 와 Peplau 의 연구(2002)와 Impeet와 Peplau, 그리고 Gable 의 연구(2005), Amy L. Gentzler과 Kathryn(2004)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성 교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의 응종과 정서적 영향을 측정하는 모형을 산출하여 AMOS 5.0을 이용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의 공통의 구조방정식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검증하였다.

### 3. 측정 도구

#### (1) 성인애착 척도(*Revised Adult Attachment Scale*)

애착 관계의 질에 대한 평가는 Collins 와 Read (1990)에 의해 개발된 성인애착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Hazan과 Shaver(1987)의 성인애착 척도를 기초로 한 것으로,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Hazan과 Shaver(1987)는 성인 애착을 아동의 세 가지 유형과 동일하게 분류하였으나 Collins 와 Read 는 성인애착을 범주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 차원적 접근에 기초한다. 이 질문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척도에 포함된 문항들은 요인 분석에 의해 의존, 불안, 접근의 세 하위 척도로 나누어졌으며 하위 척도는 애착과 다른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탐색할 때 어느 애착 요소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Collins 와 Read(1990)는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의존 .71 불안 .52, 접근 .68로 보고하였다. 하위 세 가지 척도는 가까운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접근(Close),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한다고 느끼는 의존(Depend), 그리고 버려지거나 사랑받지 못할것에 대한 두려움인 불안(Anxiety)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접근과 의존의 차원은 상호관련이 있고 동일한 회피의 차원을 측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Brennan *et al.*,1998). 그러므로 두가지 차원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 본 논문에서는 내적 합치도를 저해하는 문항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편하다’, ‘나는 상대방과 하나로 융합되고 싶다’, ‘종종 나의 친구/애인/배우자는 내가 편하게 느끼는 정도보다 더 친밀해지길 원한다’)을 제외한 15문항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남녀 각각의 내적 합치도(Crombach’s alpha) 는 회피가 각각 .733과 .790 이었고 불안이 남녀 각각 .757과 .803 이었다.

## (2)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 척도(*Consensual Unwanted Sex Scale*)

성적 응종의 정도를 알아보는 질문지는 Impett 와 Peplau (2002)가 제작하여 사용한 질문지를 참조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유외숙(2004)이 제작하여 임상심리학과 발달 심리학 교수 2인의 문항 내용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받고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를 검증했다. 문항은 ‘현재 사귀고 있는 파트너와 함께 있을 때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과의 성적인 접촉을 원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당신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던지, 혹은 피로했던지, 아니면 다른 이유들로 인하여 파트너의 성적 요구에 별로 응하고 싶지 않았을 경우에 파트너의 요구(애무, 구강성교, 삽입성교)가 있을 때마다 당신은 어느 정도 응했는지를 해당 칸에 표시해주십시오. 단 현재 사귀고 있는 파트너가 없는 경우에는 과거의 파트너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다. 참여자들은 각 성 접촉 요구에 응하는 정도를 ‘전혀 응하지 않았다’ 에서 ‘언제나 응했다’ 까지 7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적어도 한번 이상 성관계 응종을 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점수의 범위는 4점에서 최고 2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Cromba alpha)가 남녀 각각 .830과 .767이었다.

## (3) 성관계 응종 동기 질문지(*Reason for Sexual Compliance Questionnaire*)

이 척도는 본인이 성관계를 원하지는 않지만 응종하는 이유들을 밝히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Impett & Peplau, 2002b), 유외숙(2002)의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낙 모형도에서 응종 경험이 있는 우리 나라 대학생 800여명에 대한 주성분 분석(Principal) 하여 Varimax 직교회전을 실시한 결과 동

기의 하위요인은 접근, 욕구, 회피였다. 문항의 내용은 “내가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현재 파트너나 과거의 파트너가 요구하였을 때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응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신이 응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느 정도 중요했습니까?”이다. 응종 동기의 중요성의 정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에서 ‘아주 중요했다’ 까지 7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각점수를 합산하였을 때 점수가 높을수록 성관계 응종 동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척도의 내적합치도를 낮추는 문항(‘나는 호기심이 있었다’, ‘성관계 요구에 응하는 것이 거절하는 것보다 쉬웠다’, ‘우리는 우리 관계 안에서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갖기 위한 어떠한 규칙이나 방식을 만들었다’)를 제거하여 분석하였으며 내적 합치도는 남녀 각각 .732 과 .752이었다.

#### (4)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Watson 등(1988) 이 개발한 정적 및 부적 정서 척도(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는 이유정이(1994) 번안하여 사용해 왔던 것을 이현희 등이 2003년도에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판 정적 척도 및 부적 정서 척도의 타당화 연구에서 밝혀진 대로(이현희 등, 2003) 정적 정서 척도 중의 하나인 기민한(alert)이 원 척도에서는 정적인 척도로 분류되나 국내 타당화 연구에서는 부적적인 척도로 분류가 되었으며 번역상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제시되어 제외하였으며, AMOS 5.0 구조방정식 모형을 위한 요인분석을 위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항(과민한, 부끄러운, 단호한, 주의깊은)을 제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원하지도 않는데 상대방의 성적 요구에 응한 후의 기분이나 감정의 정도에 대해서’ 대답하도록 질문의 내용을 바꾸었다.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남녀 각각 .716 과 .684 였다.

## 4. 측정방법

첫째, SPSSWIN 13.0을 이용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 동의를 하게 되는 모형검증을 위해 성인애착 척도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 동기, 정적 정서 및 부적 척도의 각 문항으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원하지 않는 성관계 동의를 하게 되는 동기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문항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대학생의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대학생 개인의 애착특성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동기와 응종, 정적 정서 및 부적정서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전체 집단과 성별 Pearson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변인들 간의 관련 모형을 검증하고자 구조 방정식 모형을 사용하고 AMOS 5.0 으로 처리하였다.

다섯째,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를 알아보기 위해 AMOS 5.0으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특성의 남녀 차이를 보기위해 AMOS 5.0으로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 결과

#### (1)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성행동의 특성

본 연구에서 설문 대상자들의 전체 평균 연령은 23.13세였으며 남학생 160명 여학생 167명이었다. 남학생의 평균연령은 24.29세(SD=2.59), 여학생의 평균연령은 22.01(SD=3.09)세였다. 대상학년은 1학년이 21명, 2학년 67명, 3학년 117명, 4학년 122명이었다. 주거형태는 70.3%로 가족과 거주가 가장 많았으며 파트너와의 동거가 1명이었다. 다니고 있는 해당 대학지역은 서울지역이 22.9%, 수도권이 29.7%, 충청도 22%, 경상도 20.8%, 전라도 1명(0.3%), 제주도와 강원도가 각각 3명(2.1%)이었다.

성관계 경험에 대해서는 79.5퍼센트인 260명이 삽입성교의 경험, 52명이 구강성교, 52명이 애무의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9퍼센트인 3명만이 성경험이 없다는 응답을 하였다. 지금까지의 성경험 대상자의 숫자에 대한 질문에서, '없다'는 대답이 9퍼센트인 3명, 1명이 41퍼센트인 134명, 2명이 71명, 3명이 46명, 4명 이상의 성관계 경험 파트너가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22.3퍼센트인 73명이었다.

피임에 관한 질문에서 '항상 한다'는 대답이 142명인 43.4%, '가끔한다'는 126명, 38.5%, '아니다'라는 대답이 54명, 16.5%로 완벽하게 피임을 항상한다는 대답이 50% 미만이었다.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응종경험이 있는 파트너에 관한 질문에서 현재의 파트너와의 경험을 보고한 응답자는 162명, 과거의 파트너와의 경험을 보고한

응답자는 165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성행동 관련 특성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1. 인구통계학적 특성>

평균 나이	남학생=24.29(N=160)						여학생=22.01(N=167)					
학년	1학년 21명 (6.4%)			2학년 67명 (20.5%)			3학년 117명 (35.8%)			4학년 122명 (37.3%)		
대학 지역	서울 75명 (22.9%)	수도권 97명 (29.7%)	충청도 72명 (22.0%)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강원도	기타				
거주형태	가족과거주 230명 (70.3%)		하숙/자취 79명 (24.2%)		기숙사 16명 (4.9%)		파트너와의 동거 1명 (0.3%)		기타 1명 (0.3%)			
성경험	남자						여자					
파트너수	3.5명 (SD=1.2)						2.7명 (SD=1.06)					
피임의 준비 (반드시 한다)	남자						여자					
	아니다 22(13.8%)	가끔그렇다 67(41.9%)	항상그렇다 71(44.4%)			아니다 32(19.2%)	가끔그렇다 59(35.3)	항상그렇다 76(45.5%)				
파트너	남자						여자					
	과거파트너 71(44.4%)			현재파트너 89(55.6%)			과거파트너 91(54.5%)			현재파트너 76(45.5%)		
파트너와의 교제기간	남자=명(%)						여자=명(%)					
	1개월 이하	1-3 개월	3-6 개월	6개월 -1년	1년- 2년	2년 이상	1개월 이하	1-3 개월	3-6 개월	6개월 -1년	1년- 2년	2년 이상
	3 (1.8)	13 (8.1)	29 (18)	77 (48)	24 (15)	14 (8.7)	3 (1.7)	11 (6.5)	27 (16)	86 (51.4)	27 (16.1)	13 (7.7)
대상 파트너와의 성관계 빈도	남자(단위=명)						여자(단위=명)					
	주1회 이상	월1,2회	2,3개월 에1회	일년에 몇번	단 1회만		주1회 이상	월1,2회	2,3개월 에1회	일년에 몇번	단 1회만	
	3 (1.8)	5 (3.1)	7 (4.3)	69 (43)	76 (47.5)		16 (9.5)	13 (7.7)	15 (8.9)	68 (40.7)	55 (32.9)	

## (2) 경로모형에 포함된 변인의 특성과 성차

남녀 집단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 두 집단 간 평균 점수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애착의 변인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회피차원의 평균점수는 2.48(SD=.53) 였으며 여학생의 평균점수는 2.78(SD=.61)로 . 남녀 평균차이 검증(t-test)을 한 결과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회피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t=-4.67, p<0.001$ ). 남학생의 불안차원의 평균점수( $M=2.28, SD=.72$ )도 여학생( $M=2.57, SD=.80$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t=-3.36, p<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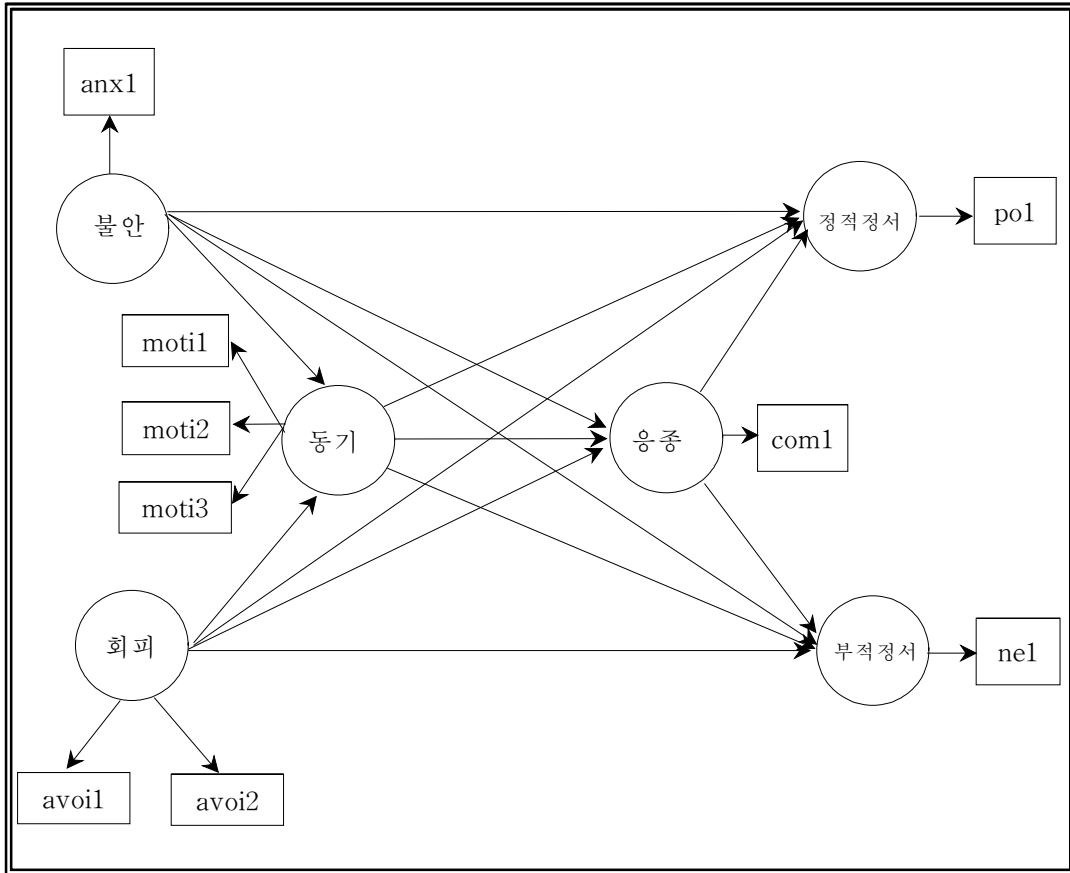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응중하는 동기에 대한 척도에서 남학생은 평균 4.15(SD=.85), 여학생 평균 3.45(SD=.94) 이었으며 남학생의 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6.93, p<0.001$ ).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응중의 척도에서 남학생의 평균점수는 4.48(SD=1.46), 여학생의 평균점수는 3.0(SD=1.47)이었으며 두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많이 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68.97, p<0.01$ ).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에서의 남녀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정적 정서의 평균점수가 3.01(SD=.99), 부적정서 1.83(SD=.73), 여학생의 경우 정적 정서가 1.96(SD=.84), 부적정서가 2.67(SD=.92)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부적 정서보다 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 하는 것으로 드러난 반면에( $t=10.24, p<0.01$ ). 여학생은 정적 정서보다 부적 정서를 훨씬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9.11, p<0.01$ ).

## (3) 남학생과 여학생의 공통모형

<그림1. 남학생과 여학생 공통의 구조방정식 모형>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사용하였는데 구조 방정식 모형이란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과 이론모형(Structural Model)을 통해서 모형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방정식 모형을 의미한다. 이는 공분산 구조방정식이라고 불리우는데 구성개념간의 이론적인 인과관계와 상관성의 측정지표를 통한 경험적 인과 관계를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된 통계기법을 말한다. 구조방정식의 모형을 산출한 후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중회귀 분석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의사효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매개 변인이 포함되었고 독립변인에 따른 종속변인의 결과가 또 다른 종속변인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이므로 경로분석이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에 적합한 도구라 할 수 있다.

모형을 산출하기 전에 SPSS 13.0 프로그램 상의 원자료에서 평균교체법

으로 결측치를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남녀 공통의 성관계 응종과 결과에 관한 모형을 산출하여 적합도를 평가하고 남녀 집단을 나누어 비교하였다. 모형에는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측정변수가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를 때 정확한 미지수의 추정을 가능하게 해 주고 적절한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다변량 정규분포의 가정을 일부 벗어난다고 해도 미지수 추정에 문제가 없게 해주는 방식이다.

모형은 각 변수를 SPSS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에 잠재변인인 애착의 각 하위유형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응종의 동기,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 정적 정서와 부적정서를 측정해주는 관측변수로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가 있는데 이는 변수 또는 오차간의 상관을 미지수로 바꾸는 것으로 연구모형에서 적합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그러나 제시되는 모든 수정지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변수간의 특징수가 미지수로 되는 것이 타당한지를 먼저 평가해야한다(2004, 김계수). 특히 인과 관계가 주어진 변수들간의 상관은 적합도를 높이는 것 외에 이론적인 타당도가 떨어지므로 본 연구에서도 독립변인, 종속변인, 매개 변인 내에서의 수정지수만을 사용하여 적합도를 조정하였다. 또한 헤이우드 케이스(Heywood Case)는 위반 추정치 중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오차의 음오차 분산이 한계값 이상으로 큰 경우로, 본 모형에서 2개의 헤이우드 케이스가 발견되어 변수를 0.005값으로 고정을 하여 수정하였다. 각 변인에 포함되는 잔차(residual)와 헤이우드 케이스, 모델수정지(modification indices)는 모형에서 생략하였다.

<표2>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적합도 지수	$\chi^2$	df	p	$\chi^2/df$	GFI	AGFI	CFI	RMSEA
가설 모형	18.49	14	0.185	1.321	.970	.904	.979	.050

기준에 가장 적합도를 잘 제시해준다고 하는  $\chi^2$  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100개에서 200개 사이인 경우가 아니면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한 적절한  $\chi^2$  값을 얻을 수 없다(Hair 등, 1998; Tanaka, 1987). 그러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합지수(GFI)는 일반적으로 0(무적합)에서부터 1(완벽한 적합) 사이의 값을 가지며 회귀 분석의  $R^2$  과 비슷하게 해석이 되며 표본크기의 변화나 다변량 정규성의 위반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제안모형의 적합도를 잘 설명해 준다. 이 값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표본크기가 200개 이상이라면 .90이상의 점수가 보편적으로 권장되는 수준이다. 이 모형에서는 .970이므로 적합한 수준이다. 조정 적합지수 AGFI 는 GFI 를 확장시킨 것으로서, 모형이 복잡할수록(또는 추정모수가 많을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동일한 자료를 더욱 잘 적합시키는 경향이 있다. 권장 수용수준은 .90이상이며 본 연구에서 .904로 나타났으므로 적합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비교적합지수 CFI는  $\chi^2 - df$  에 의해 추정된 비중심 모수에 기초를 두는 것으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본 모형에서 .979이므로 적합한 정도를 보여준다.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RMSEA) 은 중심  $\chi^2$  으로 사용하는 것은 모형이 모집단을 정확히 대표한다는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표본크기가 200이상인 경우에 그 한계를 수정하기 위해 개발된 적합지수가 RMSEA이다(Steiger, 1990). 이 값이 .05에서 .08 사이일 경우 자료를 잘 적합시키고 .05이하일 때 매우 잘 적합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의 모형은 .05 이므로 좋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적합한 모형을 산출하기 위해서 애착의 특성 중 회피차원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의 동기 척도를 요인 분석하여 각각 2개와 3개의 요인으로 나누었  
다. 회피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각 원척도의 의존(depend)과 접근  
(close) 의 차원으로 나누어졌고, 동기의 요인분석은 유외숙(2004)의 연구에서  
밝혀진 대로 욕구 동기, 회피동기, 접근동기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요인분석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모형으로 남녀각각의 모형에서의 경로계수를 살펴보고  
남녀 간의 차이 및 각각의 특성을 기술하였다.

#### (4)다중집단 분석

남녀 공통의 모형을 산출한 후 선행연구와 가설에 근거하여 남녀 집단간  
의 차이가 있으므로 다중집단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  
석은 하나 이상의 표본을 동시에 분석,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즉 한 집단에 적용했던 구조방정식 모형을 다른 집단에 적용했을 경우 동일  
한 추정모수를 갖게 되는지의 여부를 다중 표본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는 것이다(김계수,2004). 다중집단 분석은 모수가 표본마다 동일하다는 제한  
조건을 가진 모형을 설정하여 각각의 제한 모형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과 적  
합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다중표본 분석에서 설정되는 모형은 다음과 같다.

\*기준모형(Unconstrained model): 회귀 가중치(Structural weight), 구조  
공분량(Structural covariance), 구조잔차(Structural residual)가 모두 다르다  
고 가정한 모형이다.

\*모형1: 회귀 가중치만 동일하다고 가정한 모형

\*모형2: 회귀 가중치와 구조공분산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모형.

\*모형3: 회귀 가중치, 구조공분산 및 구조 잔차가 동일하다고 가정한 모형

모형1, 2, 3 은 집단 간 추정모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가설이 채택될 경우에는 집단간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고 가설이 기각될 경우에는 집단 간 모수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3> 성별 다중 표본 분석

구분	기준모형	모델1	모델2	모델3
Discrepancy $\chi^2$	10.081	17.396	23.063	43.466
자유도 $df$	4	11	14	19
유의확률 p (기각여부)	.039 (기각)	0.97 (채택)	0.59 (채택)	0.001 (기각)

남녀 집단별 비교에서 비제약 기준모형과 모델3에서 영가설이 기각되어 두 집단의 회귀가중치, 구조 공변량, 구조잔차에 동시 제약을 가했을 경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집단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적 정서와 부적정서의 잔차 사이에 수정적합지수(Modification indice)를 적용하여 모델을 수정하였다. 모델 수정시에 수정적합지수는 인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에 해당되지 않는 변인들간의 수정치만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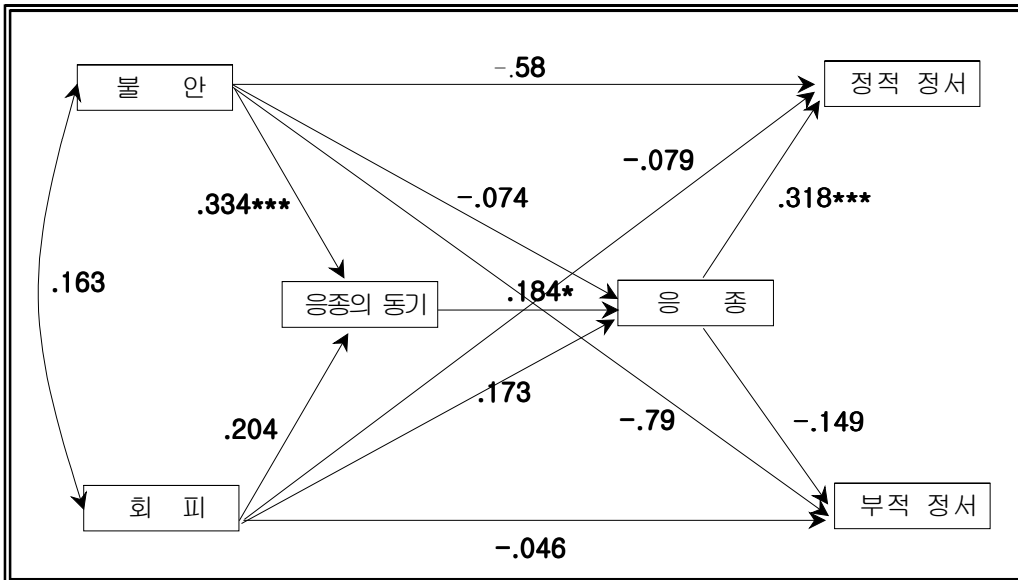
모델별 적합도는 다음과 같다

<표4> 모델별 적합도

구분	기준모형	모델1	모델2	모델3
GFI	.990	.974	.969	.952
AGFI	.894	.928	.928	.913
CFI	.974	.948	.936	.872
RMSEA	.068	.051	.051	.064

남학생의 집단에서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인 애착의 요소인 불안과 회피,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에 이르는 매개변인으로서 동기, 응종, 그에 따른 정서적 결과를 경로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남학생 집단의 경로분석



남학생 개인의 불안 수준은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의 동기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불안 수준은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았다.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원하지 않는 성관계 뒤의 부적인 감정을 유의미하게 보고하였다. 불안 수준의 경로를 살펴본 결과 가설 1, 3은 지지되었고 가설 2는 지지되지 않았다.

남학생 개인의 회피수준은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의 동기와 응종, 정적 정서나 부적 정서에 직간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았지만 회피가 높을수록 동기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자신의 행위로 인한 정적정서나 부적정서를 모두 낮게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다. 회피수준의 각 경로간의 직간접적인 경로가 유의하지는 않았으므로 가설4은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고 가설 5와 6은 지지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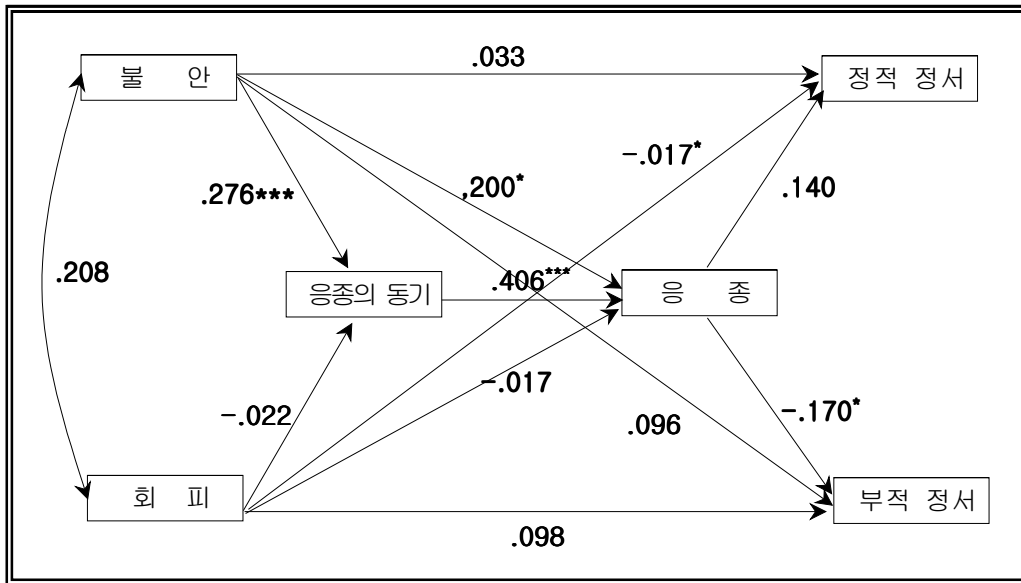
개인의 동기는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응종하게 되는 결과를 낳으며 애착의 불안차원이 응종을 높이는데 6.1%의 간접효과를 주었으며 회피 차원이 응종을 낮추는데 2.5%의 간접효과를 주었다. 또한 정적정서를 높이고 직접적인 효과를 부적 정서를 낮추는 간접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가설 7도 지지되었다.

개인의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의 정서적 영향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경로를 살펴보면 정적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이 유의미했다. 응종은 부적정서를 낮추는데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정적 정서의 평균 점수(M=3.01, SD=.99)가 부적정서의 평균점수(M=1.83, SD=.73)보다 높았다. 그러므로 가설 10과 11은 지지되었다. 남학생의 각 변인간의 경로의 총효과와 직, 간접 효과는 다음과 같다.

< 표5> 남학생 집단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구분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불안→동기	.334	.334	.000
불안→응중	-.013	-.074	.061
불안→부적정서	.206	.204	.002
불안→정적정서	-.062	-.058	-.004
회피→동기	-.135	-.135	.000
회피→응중	.148	.173	-.025
회피→부적정서	-.068	-.046	-.022
회피→정적정서	-.032	-.079	.047
동기→응중	.184	.184	.000
동기→부적정서	-.027	-.027	.000
동기→정적정서	.058	.000	.058
응중→부적정서	-.149	-.149	.000
응중→정적정서	.318	.318	.000

<그림3> 여학생집단의 경로분석



여학생의 경로도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학생 개인의 불안 수준은 원하지 않는 동기에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응종에도 유의미한 직간접적인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여학생 경로모형에서도 가설 1,2,3 은 모두 지지되었다.

개인의 회피수준은 동기와 응종에 직간접적인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가설 4와 5는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고 6은 지지되었다.

개인의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응종하는 동기는 응종에 직접적인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응종의 동기는 개인의 성인애착의 불안차원이 응종을 높이는데 11.2%의 간접효과를 주었으며 회피차원에서는 1.7%의 낮추는 효과를 내었다. 개인의 응종의 동기가 높아질수록 응종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설 7도 지지되었다.

응종하고 난후의 정서는 정적 정서보다 부적정서가 점수가 높았으므로 가설 8은 지지되었으나 성관계에 응종하고 난후의 정서는 응종이 높을수록 부

적정서가 낮아졌으며 정적인 정서와는 유의미하지 않은 정적인 상관관이 있었다. 따라서 가설 9는 기각되었다. 여학생 경로분석의 총효과와 직접효과, 간접효과는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표6> 여학생 집단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구분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불안→동기	.276	.276	.000
불안→응중	.312	.200	.112
불안→부적정서	.043	.096	-.053
불안→정적정서	.077	.033	.044
회피→동기	-.022	-.022	.000
회피→응중	-.027	-.017	-.024
회피→부적정서	.102	.098	.008
회피→정적정서	-.257	-.253	-.006
동기→응중	.406	.406	.000
동기→부적정서	-.069	.000	-.069
동기→정적정서	.057	.000	.057
응중→부적정서	-.170	-.170	.000
응중→정적정서	.140	.140	.000

### (5) 남녀 대학생의 경로의 차이

남녀 학생의 경로분석에서의 유의미한 경로를 대상으로 차이점과 공통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애착 중에서 불안의 차원은 남녀 모두에게서 성관계 응종의 동기에 유의미한 정적 경로를 보여주었다.

둘째, 성인애착 중에서 불안의 차원은 여학생에게서만 성관계 응종의 동기에 유의미한 정적 경로를 보여주었으나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셋째, 성인애착 중에서 불안의 차원은 남학생에게서만 성관계 응종후의 부적적인 정서에 대해서 정적인 유의미한 경로를 보여주었다.

넷째, 성인애착 중에서 회피의 차원은 두 집단에서 모두 응종의 동기와 응종에서 유의미한 경로를 보여주지 않았다.

다섯째, 성인애착 중에서 회피의 차원은 여학생에게서만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의 정도를 낮추는 효과를 주었다.

여섯째, 성인애착 중에서 회피의 차원은 여학생에게서만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 후 정적인 정서와 음의 경로를 보여주었다. 즉 회피가 높은 여학생은 성관계 응종을 할수록 정적인 정서를 적게 경험하게 된다.

일곱째, 남학생 집단에서만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이 정적 정서에 정적인 강한영향을 주었다.

여덟째, 여학생 집단에서만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이 부적정서를 낮추는 유의미한 효과를 내었다.

## V. 연구의 논의 및 제한점

### 1. 연구의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의 데이트 파트너의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의 응종과 정서적 영향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축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의 응종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요인과 매개 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서적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동시에 이 경로는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련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개인적 변인으로서 성인애착의 회피와 불안 두 차원과 동기, 그리고 성관계 응종, 그에 따른 정서적 영향으로서의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 두 차원을 바탕으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검증 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애착 요소인 불안, 회피와 대학생의 이성교제에서의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에 대한 응종 사이에 성관계 응종동기가 부분적 매개효과를 주었으며, 남녀 경로 간에 차이가 있었다.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인 애착의 요소인 불안과 회피,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에 이르는 매개변인으로서 동기, 그리고 응종, 또 그에 따른 결과를 경로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요소인 불안 수준은 대학생들의 이성교제에서 응종동기를 통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에 남녀 모두에게서 직간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의 애착 요소 중에서 불안수준이 높을수록 성관계 응종 동기 수준이 높아진다.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성관계 응종 동기가 높아지는 것은 불안 한 개인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지속적으

로 추구하고 장기간 상대방과의 교제를 유지하고 싶어하지만 상대 파트너는 자신과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지각하기 때문에 강박적으로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Collins & Read, 1990; Kuncce & Shaver, 1994).

남녀 학생 모두 개인의 불안 수준은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의 동기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이 있었으며 이는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파트너와의 관계의 친밀도를 높이거나 갈등을 회피하려는 동기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불안 수준은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원하지 않는 성관계 뒤의 부적인 감정을 유의미하게 보고하였다. 남학생의 불안 수준의 경로를 살펴본 결과 불안은 동기를 통하여 응종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쳤다. 불안할수록 부정정서를 많이 경험할 것이라는 가설 지지되지 않았다. 여학생의 경우 애착의 불안이 응종의 동기에도 영향을 미치며 응종에도 영향을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부정정서에 양의 경로 값은 보여주고 있으나 유의미하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남녀 모두에게서 불안은 원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동기들로 인하여 파트너의 성관계 요구에 응종하는 결과를 보여주기는 했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만 개인의 불안이 부정정서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내었다.

두 번째로, 남녀학생의 애착의 회피차원에 따른 변인들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학생의 경우 회피가 높을수록 이성교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의 동기와 응종이 높았으며 정적인 정서, 부적인 정서모두 적게 경험하였으므로 정서적으로 비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낳는 상태, 즉 차분하거나 조용하거나 수동적이 되는 상태를 보여준다. 여학생들의 경우 회피가 높을수록 응종의 동기도 낮아지고 응종도 낮아지고 정적인 정서를 유의미하게 적게 경험하면서 부적인 정서를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높게 경험하는 것을 보여주어 남학생집단과의 차이를 보여준다. 회피가 높은 개인은 상대방의 성적 요구에 대해서 자신이 지각하는 친밀감보다 더 많

은 것을 과하게 요구한다고 생각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에 대해서 거절하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가까운 관계에 대해서 불편감을 느끼고 타인에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려는 경향 때문에 상대방의 성적 요구에 대해서도 거절을 표현하기 쉽다.

남학생 개인의 회피수준은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의 동기와 응종, 정적 정서나 부적 정서에 직간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는 않았지만 회피가 높을수록 동기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자신의 행위로 인한 정적정서나 부적정서를 모두 낮게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타인에게 쉽게 의존하거나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 특성을 가진 개인일수록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응종할 동기나 응종이 낮아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인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지각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더 많이 친밀한 관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지각하고 불편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회피수준의 각 경로간의 직간접적인 경로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세 번째로, 개인의 동기는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원하지 않는 데도 응종하게 되는 결과를 낳으며 정적정서를 높이는데 직접적인 효과를 부적 정서를 낮추는데 간접효과를 보였다. 동기의 요인분석에 따른 하위 요소별 항목에서는 남녀 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평균 점수로 보았을 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원하지 않는 성관계의 동기가 유의미하게 높아서 남자가 여자보다 성관계의 동기나 욕구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높은 동기는 접근적 동기, 그다음으로는 욕구동기, 그다음으로는 회피동기가 높아서 상대방과의 친밀감을 추구하거나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어하는 동기가 가장 높았다.

네 번째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남학생이 성욕구가 여학생보다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강한 성행동의 욕구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성관계 요구에 대해서 기꺼이 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에 따른 정서적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학생의 정서를 먼저 살펴보면 집단 전체의 정적 정서는 평균 점수가 중간 값 이상을 보여주며 부적정서의 점수와 정적 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정적정서를 부적정서보다 훨씬 더 많이 보고하였다. 이는 정적 활성화 상태인 흥미진진하거나 열정적인 상태로 자신의 성적 능력에 대한 만족감이나 상대방의 욕구를 충실히 응하여 주었다는 느낌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의 정서에 대한 보고는 사건 후의 정서의 인지적 측면에 개입된 이차적인 평가이므로 응종 직후의 감정이기보다는 일반적인 성적 능력과 흥미에 따른 결과일 수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남학생은 기꺼이 원하였든 그렇지 않든, 성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것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행동과 정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그 이후의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도 기꺼이 성관계에 응종하여 정적 정서를 높이는 행동을 하리라 예측할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 부적정서가 정적정서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자신이 원해서라기보다 상대방의 욕구에 응하여 혼전 성관계에 응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보고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을 많이 할수록 부적정서를 낮추는 효과를 내며 정적 정서를 유의미하게 높이지는 못하여서 가설이 기각되었다.

이 연구 결과는 같은 척도를 사용한 미국의 연구의 경우(Amy L. Gentzler & Kathryn A. Kerns, 2004 ; Impett & Peplau & Gable, 2005)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의 응종에 부적정서를 더 높게 보고하였는데 이는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억지로 응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만족감을 적게 보고한 것과 비교해서 반대의 결과를 낸 것이다. 즉 미국 대학생들과의 성행동과 인지적인 정서 평가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단편적으로 보아서 여학생들의 성관계 응종을 긍정적인 것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않된다.

우리나라 여자 대학생들은 불안이 높은 개인일수록 여러 가지 동기를 통해 상대방의 성적 요구에 응하여 불안을 낮추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평소 성행동을 고려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적게 함으로써 인지 부조화를 줄이려는 전략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정서의 특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Watson과 Tellegen(1999a)은 정서(affect)를 활성화(activation)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활성화가 높다는 것은 각성되어(aroused)있고 놀란 상태(surprised /astonished)를 말하며, 활성화가 낮다는 것은 조용하고(quiet), 차분하며(tranquil) 수동적인(passive) 상태이다. 즉, 여학생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거절하였을 경우에 경험할 수 있는 부적인 정서를 낮추는 효과를 내기위해 응종을 하는데 반해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응종을 많이 할수록 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여학생에게 있어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의 응종은 유쾌한(pleasant), 활성화된(activation) 상태의 추구가 아니라 유쾌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회피하고 평온함이 깨지지 않은 상태, 수동적인 상태의 추구인 것임에 주목해야 한다. 즉 여학생에게 있어서 성관계 응종은 남학생의 응종보다 그 정서적 이득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의 정서의 평가는 행동을 한 후 일정시간이 지난 후 정서에 대해 질문을 하였으므로 정서에 대한 이차적인 평가이다. 그러므로 응종을 할수록 부적인 정서를 낮게 보고하는 연구결과는 여학생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성관계에 응했을 경우에 상대방으로부터의 만족감의 표시나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었으며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상대방으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던 경험의 산물일 수 있다

함께 고려해야 할 점은 여학생의 성인애착의 회피나 불안의 차원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으며 이에 따라 부적인 정서를 정적인 정서보다 높게 보고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여학생들이 이성교제에서 파트너와의 갈등에서 문제

를 본인과 파트너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데 있어서 남학생보다도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우리나라 여자대학생의 성관계에 있어서 수동성을 고려해볼 때 자신의 뚜렷한 주관과 사건에 따른 직접적인 정서 경험에 따라서 행동하기 보다는 상대방으로부터의 피드백에 의해 영향을 받기 쉬울 수 있다. 이에 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남학생들이 혼전 성관계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충동’과 ‘쾌락’에 많은 대상자들이 응답하였으며 여학생들의 혼전 성관계 이유로는 ‘사랑’이 많았으며, ‘거절 못해서’가 그다음으로 나타나 여학생들의 수동적 행동을 보여준다(최명숙, 2004). 다른 연구에서도 첫 혼전 성관계 동기에 대한 질문에서 남학생은 ‘사랑하기 때문에’(33.3%), ‘성교가 어떤 것인지 호기심이 있어서’(31.9%), ‘분위기에 끌려서’(26.4%)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의 경우 ‘사랑하기 때문에’가 60.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고연숙, 2000). 즉 국내 여자 대학생의 경우에 성행동의 쾌락 그 자체보다도 상대방과의 관계 유지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성행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학생 집단에서 불안이 높은 개인일수록 부적정서를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을 많이 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보았을 때 파트너와의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인의 애착 특성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 성인애착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안정된 애착은 개인이 스트레스에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불안정한 애착은 개인이 스트레스에 보잘 것 없는 대처를 하기 쉽게 만든다(Kobak & Sceery, 1988). 즉 안정 애착은 개인의 대처 기술을 촉진시키지만 불안정 애착은 개인이 역경을 헤쳐 나가는데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성관계에 응종을 하게 되면 관계 안에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적다고 지각할 수 있으며 성관계 뿐 아니라 다른 협상이 필요한 영역에서도 습관적으로 파트너의 소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협상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개인에게 심리치료나 상담프로그램이 실시될 경

우 원하지 않는 성관계의 응종을 함으로써 부적 정서를 낮추는 책략대신에 자신의 애착에 관련된 특성을 이해하고 파트너와의 관계를 상호간에 정적인 정서를 높이며 만족할 수 있는 대처 방식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이성교제에서 파트너의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하는 행동은 개인의 애착특성인 불안과 회피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의 동기와 응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남학생에게서는 응종이 높을수록 정적 정서를 높이며 여학생은 부적정서를 낮추는 정서적 영향의 결과를 내었다.

## 2. 연구의 의의

본 연구가 가지는 시사점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데이트 파트너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요구받았을 때 거절하기보다는 파트너의 요구에 응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를 통하여 초기 성인기의 성행동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일부 개념화함으로써 성문제 심리치료에서 문제해결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연구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더욱이 국내 연구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의 정서적인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없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애착의 불안과 회피의 차원에 따라서 성행동을 설명할 수 있음을 밝혀 불안과 회피가 높은 개인의 성행동 특성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개념화함으로써 개인의 특성에 따른 행동의 방향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갈등해결을 위한 심리치료를 위한 선행연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행동에 미치는 애착과 동기의 특성 정서적 영

향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행동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어 차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성행동의 갈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적 정서가 증가하게 되는 남학생보다는 부정적 정서를 낮추는 수단으로서의 성관계 응종을 하는 여학생들에게 성관계의 일방적 응종보다는 데이트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성적 갈등을 풀어나갈 것을 제시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밝혀내었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애착 특성과 성별 특성에 따라 개인의 성행동의 방향이 달라지며 경험하는 정서도 달라지는 것을 밝혀 주어 애착 특성과 성행동의 갈등에서 오는 개인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정신건강의 치료의 효과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3. 제한점

첫째, 경로 모델은 원하지 않는 성관계 경험에서 현재 데이트 파트너와 과거 데이트 파트너 경험을 함께 포함시켜 분석을 하였다. 과거 파트너와의 경험을 기억해서 질문을 답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었을 자료가 포함되었으며 더욱이 그 때의 정서를 물었을 때 정확히 보고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선정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의 정서적 영향에 대한 측정 도구가 정서적 영향 전체를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셋째, 본 연구 대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청소년이나 청년집단에게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집단과 연령층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 경험을 한 후의 정서의 평가가 여학생의

경우에 외국의 연구결과와 다르게 부적정서를 높이는 경로를 보여주지 않았으므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과 정서 사이에 직간접적인 파트너로부터의 피드백에 의한 것인지 파트너의 반응과 관계없이 자신만의 정서인지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진경(2001). 아동의 부모에 대한 내적 표상, 청소년기의 자아개념,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3), 1-24.
- 강현숙(1989).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태도와 성경험의 관계연구. 최신의학, 32(2),120-125.
- 고연숙(2000). 남녀 대학생의 성태도와 성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김봉순(2000). 대학생의 성의식과 성경험 실태에 관한 연구. 공주영상정보대학 논문집, vol.7, 111-124.
- 김수경 (2004). 대학생의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과 부모에 대한 애착 표상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향숙 (2001). 대학생의 애착. 사랑유형에 따른 성행동.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 논문
- 김주연 (2002). 대학생의 애착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 및 이성관계 만족도와 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손애리, 천성수 (2005). 전국 대학생의 성의식, 첫 성경험 및 성행동에 대한 성차. 보건과 사회과학, 2005, vol.18, 73-100.
-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2003).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의 타당화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2003, vol.22, 4, 935-946.
- 유의숙(2004). 이성교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요구의 응낙에 대한 설명모형.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상담 및 심리치료 학회
- 원호택, 이용승(1997). 성인애착 양상에 관하여-심리치료와 정신병리 연구에

-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심리학의 연구문제, 1997, 4, 85-116.
- 전경구, 김교현, 이준석(2000).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 개발 연구. 한국 건강 심리학회지, 2000, vol.5, No.2, 316-335.
- 정봉교, 현성용, 윤병수 공역(2003). 동기와 정서의 이해, pp. 500-503, 박학사, 원저자:Johnmarshall Reevel, Wiley Press.
- 최명숙(2004).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성경험, 성적 자율성에 관한 연구.여성 건강 간호학회지, 2004, 10(4), 318-330
- 한경순, 함미영(2000). 일개 대학 대학생들의 성지식, 태도 경험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6(1), 115-131.
- Arnold, M. B. (1970). Perennial problems in the field of emotion. In M. B. Arnold (Ed.), *Feelings and emotions* (pp. 169-185). New York: Academic Press.
- Amy L. Genizler & Kathryn A. Kerns(2004). Associations between insecure attachment and sexual experiences. *Personal Relationships*,11(2004), 249-265.
- Bartholomew, K. (1990) On the instability of attachment style ratings. *Personal Relationship*, 2. 247-261.
- Basson, R. (2001). Using a different model for female sexual response to address women's problematic low sexual desire.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27, 395-403.
- Basso, R. (2003). Biopsychosocial models of women's sexual response: Applications to management of desire disorders.' *Sexual and Relationship Therapy*, 18,107-115.
- Benjamin L. Hankin&Jon D. Kassel(2005).Adult Attachment Dimension and

- Spcificity of Emotional Distress Symptoms: Prospective Investigations of Cognitive Risk and Interpersonal Stress Generation as Mediating Mechanism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40-142)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45-373.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New York: Basic Books.
- Byers, S. E.(1996). How well does the traditional sexual script explain sexual coercion? Review of a program of research. In S. E. Byers & L. F. O'Sullivan (Eds.), *Sexual coercion in dating relationships* (pp. 7-25). Binghamton, NY; Haworth Press.
- Carnelly, K. B., Pietromonaco, P. R., & Jaffe, L. (1994). Depression, Working models of others, and relationship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h and Social Psychology* 66, 127-140.
- Carroll,J.L., Volk, K.D., & Hyde, J. S. (1985). Differences between males and females in motives for engaging in sexual intercourse. *Archives of Sexual Behavior*, 14,131-139.
- Collins, N. l., & Read, Sj.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C. Sioanean, et al., "Psychosocial and Behavioral Correlates of

- Refusing Unwanted Sex Among African-American Adolescent Female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 30, no. 1, pp. 55-63
- Psychology* 58(4), 644-663
- Denney, N. W., Field, J. K. & Quadagno, D. (1984). Sex differences in sexual needs and desire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13, 233-245.
- Feeney, J. (1995). Adult attachment and emotional control. *Personal Relationships*, 2, 143-159.
- Folkman, S., & Lazarus, R. S. (1990). Coping and emotion. In N. Stein, B. Leventhal, & T. Trabasso emotion (pp. 313-332).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Fraley, R. C., & Shaver, P. R. (1998). Airport separations: A naturalistic study of adult attachment dynamics in separ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198-1212.
- Freley, R. C. (2002). Attachment stability from infancy to adulthood: Meta-analysis and dynamic modeling of developments, emerging controversies, and unanswered question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4, 132-154.
- Frijda, N. H.(1986). The emo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ir, J. F. Jr., R. E. Anderson, R. L. Tatham, and W. C. Black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5th ed., Prentice-Hall International.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and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la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all, C. A. (1977). *Differential relationships of pleasure and distress with depression and anxiety over a past, present, and future time framework*.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apolis.

- Hatfield, E., Sprecher, S., Pillemer, J. T., Greenberger, D., & Wexler, P. (1989). Gender differences in what is desired in the sexual relationship. *Journal of Psychology and Human Sexuality*, 1(2), 39-52.
- Hickman, S. E., & Muehlenhard, C. L. (1999). "By the semi-mystical appearance of a condom": How young women and men communicate sexual consent in heterosexual situation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6, 258-272.
- Hill, C.A., Preston, L. K. (1996).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experience of sexual motivation: Theory and measurement of dispositional sexual motive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3, 27-45.
- Ingunn hansdottir (2003). Relationship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o Coping and Functional Outcomes in Systemic Sclerosi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an Diego State University.
- Impett, E. A., & Peplau, L. A. (2000, August), Saying "yes" but thinking "no": Consensual participation in unwanted sex.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 Impett, E. A., & Peplau, L. A. (2002a). Gender, sex motives, and emotional reactions to sexual scenarios. Unpublished raw data.
- Impett, E. A., & Peplau, L. A. (2002b). Why some women consent to unwanted sex with a dating partner: Insights from attachment theor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6. 359-369.
- Impett, E. A. & Peplau, L. A. (2003). Sexual compliance: gender,

motivational, and relationship. *the Journal of Sex Research*, 40(1), 87-100

- Impett, E. A., & Peplau, L. A. & Shelly L. Gable. (2005). Approach and avoidance sexual motives: Implications for personal and interpersonal well-being. *Personal Relationships*, 12(2005), 465-482.
- Kinsey, A.C., Pomeroy, W.B., & Martin, C. E. (1948). *Sexual behavior in the human male*. Philadelphia: W.B. Saunders.
- Kinsey, A.C., Pomeroy, W.B., & Martin, C. E., & Gebhard, P.H. (1953). *Sexual behavior in the human female*. Philadelphia: W. B. Saunders.
- Krahe, B., Scheinberger-Olwig, R., & Koblin, S. (2000). Ambiguous communication of sexual intentions as a risk marker of sexual aggression. *Sex Role*, 42, 313-337.
- Kunze, L. J., & Shaver, P. R. (1994). An attachment-theoretical approach to caregiving in romantic relationship. In K. Bartholomew & D. Perlman (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Vol. 5. *Attachment processes in adulthood* (pp.205-237). London: Jessica Kingsley.
- Lazarus, R. S. (1991a). *Emotion and adapt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azarus, R. S. (1991b). Progress on a cognitive motivational-relational theory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46, 819-834.
- Lazarus, R. S. (1994). Universal antecedents of the emotions. In P. Ekman & R. J. Davison (Eds.), *The nature of emotion: Fundamental questions* (pp. 163-17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eigh, B. C. (1989). Reasons for having and avoiding sex: Gender, sexual orientation, and relationship to sexual behavior. *The Journal of Sex Research*, 26, 199-209.

- Lewin, M. (1985). Unwanted intercourse: The difficulty of saying no.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9, 184-192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66-104.
- Muehlenhard, C. L., & Hollabaugh, L. C. (1988). Do women sometimes say no when they mean yes?: The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women's token resistance to sex.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872-879.
- Muehlenhard, C. L., Powch, I. G., Phelps, J. L., & Giusti, L. M. (1992). Definitions of rape: Scientific and political implications. *Journal of Social Issues*, 48(1), 23-44.
- O'Sullivan & Allgier (1998). Feigning Sexual Desire: Consenting to Unwanted Sexual Activity in Heterosexual Dating Relationship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Vol. 35, Number 3. 234-243.
- Rosenstein, D. S. & Horowitz, H. A. (1996). Adolescent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2, 244-253
- Russell, J. A., & Carroll, J. M. (1999a). On the bipolarity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Psychological Bulletin*, 125, 3-30.
- Shotland, R. L., & Hunter, B. A. (1995). Women's token resistant and compliant sexual behaviors are related to uncertain sexual intentions

and rap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226-236.

Smith, C.A., Haynes, K.N., Lazarus, R. S., & Pope, L. k. (1993). In search of the "hot" cognitions: Attributions, appraisals, and their relation to emo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916-929.

Tanaka, J. (1993), "Multifaceted Conceptions of Fit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K. A. Bollen and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lif: Sage.

Tellegen, A., Watson, D., & Clark, L. A. (1999a). On the dimensional and hierarchical structure of affect. *Psychological Science*, 10, 297-303.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1070.

Weiss, R. S. (1982). Attachment in adults. In C. M. Parkes & J. Stevenson-Hinde(Eds.). *The place of attachment in human behavior*(pp.171-194). New York: Basic Books.

Winnie Eng, & Richard G. Heimberg, & Trevor A. Hart, &Franklin R. Schneier, & Michael r. Liebowitz. (2001). Attachment in Individuals with Social Anxiety Disorder: The Relationship among Adult Attachment Styles,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 *Abstract*

### *The model of unwanted sexual compliance with dating partners and its influence on personal affection*

*So-Yeon, Kong*

*The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how adult attachment style and motivation of sexual compliance resulted in unwanted sexual behavior, and how its effect influenced on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three hundred and twenty seven students(160 men and 167 women) recruited from 12 Korean universities who had experienced unwanted sex with a her/his dating partner, participated in this study. Revised Adult Attachment Scale(RAAS), Consented unwanted sex scale, reasons for sexual compliance and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PANAS) were administered to the two hundred eight four students taking a cyber class and forty three students taking a introductory psychology course.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t-test,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pathway analysis*

*using SPSSWIN 13.0 and AMOS 5.0.*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Significant paths were demonstrated for men and women participants. First, the higher the anxiety level of attachment of them appeared, the higher motivation for sexual compliance and the consensual unwanted sex occurred among both sexes.*

*Second, the higher the avoidance level of attachment of them appeared, the lower motivation for sexual compliance and the lower consensual unwanted sex occurred only in women.*

*Third, men reported that the more they consented unwanted sexual compliance, the more they felt positive affect for their sexual behavior.*

*Fourth, women showed that the more they complied with unwanted sex, the lower they felt negative affect for their sexual behavior. Discussions and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were suggested. The limitation and further study were also suggested.*

*key words: unwanted sexual compliance, reasons for sexual compliance,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 부록

1. 남녀 전체 적률 상관계수
2. 남학생 적률 상관계수
3. 여학생 적률 상관계수
4. 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 동기 특성
5. 동기 요인분석
6. 회피 애착 요인 분석
7. 중다상관 자승치
8. 공분산
9. 표준화와 비표준화 경로계수
10. 설문지

부록1. 남녀 전체 적률상관계수

*N*=327

	(1)	(2)	(3)	(4)	(5)	(6)	(7)	(8)
(1)불안	1							
(2)회피	.530**	1						
(3)접근동기	.199**	.021	1					
(4)욕구동기	.077	-.076	.474**	1				
(5)회피동기	.086	.005	.174**	.349**	1			
(6)응중	.081	.007	.305**	.387**	.274**	1		
(7)정적정서	-.147**	-.242**	.111*	.311**	.363**	.390**	1	
(8)부적정서	.193**	.190**	-.104	-.159**	-.122*	-.307**	-.485**	1

부록2. 남학생 적률 상관계수

*N=160*

	(1)	(2)	(3)	(4)	(5)	(6)	(7)	(8)
(1)불안	1							
(2)회피	.511**	1						
(3)접근동기	.289**	.041	1					
(4)욕구동기	.080	-.063	.350**	1				
(5)회피동기	.153	.084	.211**	.317**	1			
(6)응중	.063	.142	.087	.104	.202**	1		
(7)정적정서	-.079	-.064	-.051	.160*	.292**	.303**	1	
(8)부적정서	.171*	.037	.003	-.004	.155	-.142	-.344**	1

부록3. 여학생 적률상관계수

*N=167*

	(1)	(2)	(3)	(4)	(5)	(6)	(7)	(8)
(1)불안	1							
(2)회피	.507**	1						
(3)접근동기	.217**	.106	1					
(4)욕구동기	.194*	.051	.502**	1				
(5)회피동기	.150	.090	.038	.253**	1			
(6)응중	.299**	.132	.385**	.440**	.126	1		
(7)정적정서	-.053	-.218**	.064	.211**	.225**	.117	1	
(8)부적정서	.094	.124	-.017	-.022	-.089	-.128	-.346**	1

부록4.원하지 않는 성관계 응종 동기 특성

문항	남학생 (N=160)		여학생 (N=167)		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 나는 관계에서 더욱 더 친밀해지길 원했다.	5.35	1.17	4.83	1.37	3.65***
2 나는 내 파트너의 욕구를 만족시키길 원했다.	5.63	1.10	4.61	1.47	7.03***
3 나는 우리의 관계에서 긴장을 피하고 싶었다.	4.63	1.36	4.01	1.52	3.90***
4 나는 성적 경험을 얻고 싶었다.	4.3	1.75	2.92	1.67	7.28***
6 나는 호기심이 있었다.	4.45	1.63	3.87	1.76	3.05***
8 나는 내 파트너와 이미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의무감을 느꼈다.	4.09	1.81	2.95	1.74	5.77***
9 내가 만약 성관계에 응하지 않는다면 파트너가 우리의 관계를 끝내겠다고 협박할까봐 걱정이 되었다.	2.15	1.31	1.95	1.53	1.24
10 내가 나에게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었다.	2.55	1.51	2.57	1.83	-.100
11 파트너가 처음 성관계를 시도할 때 그가(그녀가) 거부당했다고 느끼기를 원치 않았다.	4.18	1.83	3.35	1.74	4.18***

부록5. 동기 요인분석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h <sup>2</sup>
1 나는 관계에서 더욱 더 친밀해지길 원했다.	.637	.141	-.434	
2 나는 내 파트너의 욕구를 만족시키길 원했다.	.691	.241	-.468	
3 나는 우리의 관계에서 긴장을 피하고 싶었다.	.656	.060	-.179	
4 나는 성적 경험을 얻고 싶었다.	.519	.622	.402	
6 나는 호기심이 있었다.	.427	.671	.445	
8 나는 내 파트너와 이미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의무감을 느꼈다.	.565	-.032	-.078	
9 내가 만약 성관계에 응하지 않는다면 파트너가 우리의 관계를 끝내겠다고 협박할까봐 걱정이 되었다.	.606	-.582	.380	
10 만약 내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는다면 파트너가 나에게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되었다.	.662	-.567	.306	
11 파트너가 처음 성관계를 시도할 때 그가(그녀가) 거부당했다고 느끼기를 원치 않았다.	.626	-.253	-.111	
고유치	3.281	1.644	1.056	
설명변량(%)	36.461	18.226	11.730	
누가변량(%)	36.461	54.727	66.456	

부록6. 회피애착 요인분석

	문항	요인1	요인2	h <sup>2</sup>
1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내 자신을 용납하기 힘들다.	.299	.000	.090
2	내가 필요로 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에 없다.	.644	-.536	.702
4	내가 필요로 할 때 사람들이 항상 가까이에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644	-.356	.542
5	나는 타인을 완전히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655	-.265	.499
6	내가 필요로 할 때 사람들이 가까이 있어서 내가 의지할 수 있으리란 확신이 없다.	.747	-.378	.701
13	사람들과 친해지기가 비교적 수월하다.	.623	.455	.595
14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522	.579	.608
15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이 다소 불편하게 느껴진다.	.650	.357	.550
16	누군가가 나와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편해진다.	.581	.277	.414
17	사람들이 나에게 의지하려는 것이 편하게 느껴진다.	.392	.132	.171
고유치		3.480	1.391	
설명변량(%)		34.803%	13.920%	
누가변량(%)		34.803%	48.724%	

부록7. 중다상관 자승치

	남	여
동기	.083	.070
응중	.051	.243
부적정서	.054	.043
정적정서	.106	.070

부록8. 공분산

	남	여
불안↔회피	.163	.208

부록9. 표준화와 비표준화 경로계수

경로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남	여	남	여
	불안→동기	.334	.276	.394***
회피→동기	-.135	-.022	-.263	-.041
불안→응중	-.074	.200	-.149	.343*
회피→응중	.173	-.017	.575	-.047***
동기→응중	.184	.406	.313*	.588***
응중→정적정서	.318	.140	.215***	.087
응중→부적정서	-.149	-.170	-.074	-.114*
불안→정적정서	-.058	.033	-.079	.035
불안→부적정서	.204	.096	.205*	.110
회피→정적정서	-.079	-.253	-.178	-.418*
회피→부적정서	-.046	.098	-.076	.176

## 설문지

귀하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대학생의 성의식과 행동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내용은 특정개인의 의견을 알아보려는 것이 아니고 대학생 집단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귀하의 응답내용은 확실히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고,

정확한 연구 결과를 위해 **최대한 솔직하게** 답해 주십시오.

귀하의 솔직한 응답은 대학생 성의식에 관한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임상심리학 / 인지행동 연구실

지도교수 채규만  
석사과정 연구원 공소연

◎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 8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 다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누구나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느낌이나 생각들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어보고 자신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번호에 V 표시를 해 주십시오. 정답이 따로 없으므로 자신에 관해 솔직하게 답해 주시고,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말고 표시해주십시오.

1=전혀 아니다 2=아니다 3=보통이다 4=약간 그렇다 5=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내 자신을 용납하기 힘들다.	1	2	3	4	5
2	내가 필요로 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에 없다.	1	2	3	4	5
3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편하다.	1	2	3	4	5
4	내가 필요로 할 때 사람들이 항상 가까이에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	2	3	4	5
5	나는 타인을 완전히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내가 필요로 할 때 사람들이 가까이 있어서 내가 의지할 수 있으리란 확신이 없다.	1	2	3	4	5
7	버림받을 까봐 걱정하는 일은 별로 없다.	1	2	3	4	5
8	나의 친구/애인/배우자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종종 든다.	1	2	3	4	5
9	다른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 걱정한다.	1	2	3	4	5
10	나는 종종 나의 친구/애인/배우자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 걱정한다.	1	2	3	4	5
11	나는 상대방과 하나로 융합되고 싶다.	1	2	3	4	5
12	상당방과 하나로 융합되고자 하는 내 욕망이 사람들을 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1	2	3	4	5
13	사람들과 친해지기가 비교적 수월하다.	1	2	3	4	5

14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1	2	3	4	5
15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이 다소 불편하게 느껴진다.	1	2	3	4	5
16	누군가가 나와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편해진다.	1	2	3	4	5
17	사람들이 나에게 의지하려는 것이 편하게 느껴진다.	1	2	3	4	5
18	종종 나의 친구/애인/배우자는 내가 편하게 느끼는 정도보다 더 친밀해지기를 원한다.	1	2	3	4	5

2. 현재 또는 과거의 파트너가 원하지 않는 성행위(애무, 구강성교 또는 삽입성교)를 요구하였을 때,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당신이 대처하였던 방식들에 V 표를 하십시오.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당신이 대처할 방식들에 V 표를 하십시오.

1=전혀 그렇지 않다 2=가끔 그렇다 3=어느정도 그렇다 4=자주 그렇다 5=언제나 그렇다

1	"NO" 라고 분명히 말한다.	1	2	3	4	5
2	상대방의 신호(Sign)를 무시한다.	1	2	3	4	5
3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설득한다.	1	2	3	4	5
4	그냥 성관계에 응한다.	1	2	3	4	5

**\*위의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3. 현재 또는 과거의 파트너와 함께 있을(있었을) 때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과의 성적인 접촉을 원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당신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던지 혹은 괴로워했던지, 아니면 다른 이유들로 인해 파트너

의 성적 요구에 별로 응하고 싶지 않았을 경우에 파트너의 성적 행동(애무, 구강성교, 또는 삽입성교)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당신은 어느 정도 응했는지 해당되는 칸에 V 표를 해주십시오. 단 현재 사귀고 있는 파트너가 없는 경우는 과거의 파트너와의 관계나 혹은 위의 상황을 가상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은지를 생각하면서 V 표시 해주십시오.

		전혀 응하지 않았다	매우 드물게 응했다	약간 응했다	때때로 응했다	자주 응했다	거의 응했다	언제나 응했다
1	애무(페팅)	1	2	3	4	5	6	7
2	구강성교(오랄 섹스)	1	2	3	4	5	6	7
3	삽입성교	1	2	3	4	5	6	7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위의 문항들에 v 표를 한 것입니까?**

현재 사귀고 있는 파트너  과거의 데이트 파트너  가상적인 상황

**\*현재 또는 과거의 파트너와의 경험한 성행위(애무, 구강성교, 또는 삽입성교)의 빈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주 1회 이상  월 1, 2회 정도  2, 3 개월에 1회 정도  일년에 몇 번 정도  
 단 1회만

**\*현재 또는 과거의 파트너와의 교제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1개월 이하  1-3개월  3-6개월  6개월-1년  1년-2년  2년 이상

4. 내가 원하지 않는 성행위(애무, 구강성교, 또는 삽입성교) 를 현재 또는 과거의 파트너가 요구하였을 때, 원하지 않는데도 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항을 잘 읽어보고 내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v 표를 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빠짐없이 답해 주십시오. 경험이 없을 경우 예상되는 이유에 표시해주십시오.

		전혀 중요하 지 않았다	중요하 지 않았다	별로 중요하 지 않았다	보통 이었다	약간 중요했 다	중요했 다	매우 중요했 다
1	나는 관계에서 더욱 더 친밀해지길 원했다.	1	2	3	4	5	6	7
2	나는 내 파트너의 욕구를 만족시키길 원했다.	1	2	3	4	5	6	7
3	나는 우리의 관계에서 긴장을 피하고 싶었다.	1	2	3	4	5	6	7
4	나는 성적 경험을 얻고 싶었다.	1	2	3	4	5	6	7
5	나는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	1	2	3	4	5	6	7
6	나는 호기심이 있었다.	1	2	3	4	5	6	7
7	성관계 요구에 응하는 것이 거절하는 것보다 쉬웠다.	1	2	3	4	5	6	7
8	나는 내 파트너와 이미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의무감을 느꼈다.	1	2	3	4	5	6	7
9	내가 만약 성관계에 응하지 않는다면 파트너가 우리의 관계를 끝내겠다고 협박할까봐 걱정이 되었다.	1	2	3	4	5	6	7
10	만약 내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는다면 파트너가 나에게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되었다.	1	2	3	4	5	6	7
11	파트너가 처음 성관계를 시도할 때 그가(그녀가) 거부당했다고 느끼기를 원치 않았다.	1	2	3	4	5	6	7
12	우리는 우리 관계 안에서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갖기 위한 어떠한 규칙이나 방식을 만들었다.	1	2	3	4	5	6	7

5. 다음은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응한 후의 감정이나 기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잘 읽어보고 원하지 않는데도 상대방의 요구에 응한 후에 느꼈던 감정이나 기분의 정도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경험이 없을 경우 그런 경험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된다면 그 후 예상되는 감정에 V 표시해주시시오.

1=전혀 그렇지 않다 2=약간 그렇다 3=보통 정도로 그렇다 4=많이 그렇다 5=매우 많이 그렇다

1	흥미진진한	1	2	3	4	5
2	과민한	1	2	3	4	5
3	괴로운	1	2	3	4	5
4	기민한	1	2	3	4	5
5	흥분된	1	2	3	4	5
6	부끄러운	1	2	3	4	5
7	마음이 상한	1	2	3	4	5
8	원기 왕성한	1	2	3	4	5
9	강한	1	2	3	4	5
10	신경질적인	1	2	3	4	5
11	죄책감 드는	1	2	3	4	5
12	단호한	1	2	3	4	5
13	겁에 질린	1	2	3	4	5

14	주의깊은	1	2	3	4	5
15	적대적인	1	2	3	4	5
16	조바심 나는	1	2	3	4	5
17	열정적인	1	2	3	4	5
18	활기찬	1	2	3	4	5
19	자랑스러운	1	2	3	4	5
20	두려운	1	2	3	4	5

**6.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모든 정보는 비밀이 보장되오니, 해당되시는 곳에 체크하시거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 ② 여

3) 귀하의 현재 학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1학년 ②2학년 ③3학년 ④4학년

4) 귀하의 대학의 해당 지역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서울 ②수도권 ③충청도 ④경상도 ⑤전라도 ⑥제주도 ⑦기  
타

5) 귀하의 거주형태는?

①가족과 거주    ②하숙/자취    ③기숙사    ④파트너와의 동거    ⑤기타

6)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기독교    ②천주교    ③불교    ④기타

7) 성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어떤 경험이었습니다?

①없다    ②애무    ③구강성교    ④삽입성교

8) 지금까지 성경험의 파트너의 수는?

①없다    ②1명    ③2명    ④3명    ⑤4명이상

9) 나는 성관계시 언제나 피임을 준비한다.

①아니다    ②가끔 그렇다    ③항상 그렇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빠뜨린 문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주세요.**

## 감사의 글

가장 먼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갈 이유를 주시고 삶의 방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논문을 지도해주신 채규만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논문의 큰 방향을 잡아주셨고 또 영문초록까지 챙겨주시는 세심함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교수님처럼 늘 현장에서 치료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논문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조언 주신 심사위원이신 이정윤 교수님과 홍대식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교수님들의 수고로우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딸을 위해 기도하셨을 아버지와 어머니, 마음으로 힘이 되어준 언니들과 형부들, 그리고 동생 빛나 모두 든든한 내 배경이 되어주어 감사합니다. 나의 가장 큰 힘은 기도하는 가문의 영적 배경입니다.

대학원에 처음 들어와서 아무 것도 모를 때부터 많은 조언을 해주신 황정미 선배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선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열정을 잃지 않고 공부하겠습니다.

같이 논문을 쓴 희진이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통계 때문에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어 고맙고 또 서로 의논하고 격려하며 논문을 썼던 시간들이 내게 정말 소중한데. 후배 진희도 참 애썼고 수고했다는 말하고 싶고 그리고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기에 기대됩니다. 정화언니도 아픈 가운데도 참 수고했고 논문방향 잡을 때 도움 주려고 했던 마음 잊지 않을게요. 논문을 쓰면서 은영이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대학원 와서 좋은 친구를 한명 더 알게 된 것이 정말 기쁘다. 앞으로

로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랄게.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 언니, 동생들, 일일이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알고 있을 그대들의 존재만으로도 많이 힘이 되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논문을 쓰는 힘든 마음을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걱정해준 덕분에 무사히 논문을 쓰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내 논문을 기대해 주어 모두에게 진정으로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인하대학교 후배들에게도 멋진 후배들을 두어 참 자랑스러웠고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대학시절을 함께했던 다른 후배들에게도 모두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논문을 내게 되어 부끄러운 마음도 들지만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논문을 발판 삼아 더 실력을 갖추고, 항상 노력하고 공부하며, 멈추지 않는 성장의 길을 나아갈 것을 모두에게 약속드립니다. 내게 펼쳐진 미래가 때로는 나약한 내 모습 때문에 두렵기도 하지만 결코 안주하거나 멈추지 않겠습니다.